



생명체의 숨소리까지 그려내는 장인匠人의 붓놀림

일러스트레이터 이원우 씨(39)는 이야기책보다는 자연물 작업을 할 때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 세밀한 그림이 갖는 고유의 매력도 있기도 하지만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가며 곤충 채집을 하고, 산과 들을 뛰어다니는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이다. 《갯벌에서 만나요》(보리)를 만드는 데 꼬박 3년을 매달려 지냈어도 ‘지겹다’는 말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반드시 취재에 동행합니다. 실제 대상을 보고 그곳에서 대략의 스케치를 하거든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린 그림을 감수 받은 후 수정을 하면서 다시 스케치를 하죠. 그리고 집에서 채색을 하고 다시 감수를 받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도감은 수정하는 부분에서 이야기책의 몇 배나 되는 인내심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 조건 때문에 세밀화 작업을 기피하는 작가들도 많다.

“마감이 있긴 하지만 워낙 장기간 작업이라 부담이 되거든요. 거기에 그림 자체가 세밀하게 파고드는 기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겨워서 어떻게 그리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작가들 중에도 답답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는 작업실에서 채색에 매달리다가도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감수자 전의식 씨와 함께 자연 속으로 향한다. 《갯벌에서 만나요》를 준비할 때 캄캄한 갯벌을 바라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라 난감해질 때 변산반도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어딜 가면 무엇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셨죠. 그걸 따라가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그곳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작업의 매력은





발견의 재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자연, 사람들이 이야기를 배우게 된 거죠.”

그는 틈틈이 생명의 개체 구조와 특성에 대해 공부한다. 생명체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밀한 정보는 사진을 따라갈 수 없지만 사진 속 배경은 시선을 분산시키거든요.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런 분산을 막습니다. 결국 생태, 구조를 현재 그대로 둔 채 어느 정도 아름답게 재구성하는 작업이죠.”

실제 자료를 통해 사전에 공부를 하지만 동식물의 구조 파악은 여전히 그림 그리는 이의 난제로 남아 있다. 같은 개체라도 서식지마다 모양과 습성이 다른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그려놓은 후 수정했던 경험도 많다.

그가 세밀화를 그리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책을 펼쳐놓고 깃벌에 사는 개 종류를 설명해 줄 때다. 도감을 보는 아이들 중에 책을 통해 처음으로 동식물을 만나는 아이가 있을 거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둔다는 그는 현재 약초 도감 준비로 바쁘다. 이번 도감 역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 프로젝트지만 그는 어려움을 잊고 여전히 식물 잎새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담는다.

“일본이나 유럽의 도감은 몇 백 년 전에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이죠. 양도 늘어나야겠지만 그림 스타일도 다양해졌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채화가 일반적이네 외국책을 보면 세밀화 그림에도 재료가 다양합니다.”

이원우 씨는 다른 그림책 작업을 하더라도 도감을 하면서 배운 것들이 다른 일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세밀

화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체의 숨소리 하나까지 남는 또 다른 삶의 재현임을 의미한다. **✎**

취재 김청연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세밀화를 그리는 사람들

외국의 어린이 그림책 분야에서는 세밀화가 오래전에 소개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세밀화 작가가 등장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워낙 힘들고 장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도감에 들어가는 세밀화를 그리려는 작가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소개하는 두 작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연과 동·식물들을 실제 사진처럼 정교하게 그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밀화가들이다.



권혁도 1955년 경상북도 예천에서 태어났다. 추계예술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했으며 1995년부터 지금까지 세밀화를 그리고 있다. 그 동안 《누구야 누구》,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식물도감》,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동물도감》 등을 그렸다.



이태수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홍익대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으며 1998년 《보리 세밀화 아이그림책》 등을 시작으로 세밀화를 그렸다. 《세밀화로 그린 보리 아이그림책》, 《잘가 토끼야》, 《바빠요 바빠》 등이 대표작이다.

